

《紅樓夢》에 나타난 賈寶玉의 자기실현*

허근배**

◁목 차▷

- I. 서론
 - II. 페르조나와 자아
 - III. 甄寶玉의 그림자 투영
 - IV. 이중적 아님-林黛玉과 薛寶釵
 - V. 出家를 통한 자기실현
 - VI. 결론
-

I. 서론

《紅樓夢》은 중국 고전소설 가운데 개인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소설의 주인공 賈寶玉은 태생부터 특이하게 ‘玉’¹⁾을 물고 태어난다. 남녀의 성격이 섞여있는 賈寶玉은 소설에서 내면세계가 섬세하고 세밀한 감각으로 그려져 다양한

* 이 논문은 2009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1): 「중국에서 구슬은 八寶 중의 하나로, 순결과 新奇를 상징한다. 고대 풍속에서는 죽은 사람의 입에 진주 구슬을 하나 물리면, 그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시체의 아홉 구멍을 금과 경옥을 막아 놓으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도 했다.」(서울, 두산동아, 1996), 74쪽. 《紅樓夢》에서 신영 시자는 오색영롱한 구슬을 입에 물고 태어나 이름을 寶玉이라고 하였고, 강주선초는 그의 고종사촌 누이 林黛玉으로 태어난다. 賈寶玉이 ‘玉’을 잃어버린 후 賈府 전체에는 화가 연이어 발생하여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때 생각해 낸 방법은 곧 가능한 한 빨리 ‘금옥의 좋은 인연(金玉良緣)’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후반부에서 賈寶玉은 ‘玉’과 자신이 본래 하나이며, ‘玉’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紅樓夢》에서 ‘玉’은 賈寶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²⁾

지금까지 《紅樓夢》³⁾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이를 분석심리학의 이론으로 검토한 논문은 없는 듯하다. 이에 본고는 융(C.G.Jung)의 分析心理學⁴⁾을 원용하여 賈寶玉의 내면세계⁵⁾와 自己實現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실현을 다른 말로 ‘개성화’라고 한다. 진정한 개성의 실현으로 그 사람 자신의 전부가 된다는 뜻이다.⁶⁾ 다시 말하면, 의식의 자아(Ego)가 총체적 정신 체계의 중심인 무

- 2) 최병규 <중국문인들의 전통적 “愛紅”심리를 통해서 본 『紅樓夢』 賈寶玉의 심리세계>: 「가보옥이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을 상징하는 옥을 물고 태어났다는지, 만 1년이 되어 돌잡이에서도 여성들의 장식품을 집었다든지, 부친에게 매를 맞을 때에도 “누나야!”라고 소리치면 통증이 덜하다든지, 처녀들의 입에 바른 연지를 먹기를 좋아한다든지 등등의 모든 그에 관한 여성 편애적 奇行들은 모두 작가의 이런 수법으로 다소 포장되고 과장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작가의 속내를 읽지 못하고 사실주의에 입각한 나머지 액면 그대로 가보옥의 행동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과거 가보옥 인물론에 대한 논문들이 대개 그러하듯 “호색”이나 “불결함”, 혹은 “부도덕” 등의 부적절한 평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틀을 범하게 될 것이다.」(《중어중문학》 제37집, 중어중문학회, 2005), 276쪽.
- 3) 《石頭記》, 《金玉緣》, 《金陵十二釵》, 《情僧錄》, 《風月寶鑑》이라고도 한다. 이 소설의 版本은 80회본과 120회본이 있는데, 80회본은 筆寫本이다. 120회본은 高鶚이 쓴 40회본을 덧붙여서 1791년경 程偉元에 의해 간행되어 ‘程甲本’이라 하고, 이 ‘정갑본’을 개정한 것이 1792년에 간행하였다는 ‘정을본’이다. 무대는 주로 金陵(南京)에 있는 賈氏의 저택 안이다. 등장인물은 400명이 넘으며, 주인공은 옥을 입에 물고 태어난, 여성의 몸은 물로 되어 있고 남자의 몸은 진흙으로 되었다는 말을 할 정도의 페미니스트인 賈寶玉과, 총명하지만 병약한 그의 사촌 누이동생 林黛玉, 그리고 총명하고 건강한 고종사촌 누이 薛寶釵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치와 大觀園 등의 건축으로 차차 기울기 시작하는 賈氏 집안에서, 寶玉은 寶釵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지만 黛玉과의 결혼을 더 원한다. 그러나 집안의 실권을 쥐 할머니 史太君은 黛玉의 몸이 허약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계약에 속은 寶玉이 寶釵와 결혼하던 날, 黛玉은 쓸쓸히 숨을 거둔다. 인생무상을 느낀 寶玉은 과거시험장에서 그대로 실종된다. 후일 아버지 賈政과 毘陵의 나루터에서 만나지만, 寶玉은 목레만 보내고 승려와 도사 사이에 끼여 눈길 속으로 사라진다.
- 4) 분석심리학은 정신분석학, 개인심리학과 더불어 ‘무의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심층심리학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S.Freud, 1856-1939) 심리학을 말하며, ‘분석심리학’은 융(C.G.Jung, 1876-1961) 심리학을 가리킨다. 이 밖에 아들러(A.Adler, 1870-1937) 심리학은 ‘개인심리학’이라 부르는데, 이들 모두는 ‘무의식’을 심리적 실재로 여기고 연구하는 ‘심층심리학’이다.
- 5) 이부영 《분석심리학》: 「내가 아는 세계가 의식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는 정신세계를 무의식이라고 부른다.」(서울: 일조각, 1998), 58쪽.

의식 안의 자기(Self)를 만나 동화되어 가는 인격 성취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격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의식 안에 반영된 외부 세계의 요구와 무의식 안의 원형적 상징들에 투사된 내부 세계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페르조나(Persona)와 자아(Ego), 그림자(Shadow), 아니마(Anima), 자기(Self)와 같은 무의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형들을 만나게 된다. 즉, 무의식 안에 있는 원형들을 의식화하여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紅樓夢》 가운데 인간의 심리구조가 만들어낸 여러 내용들에서 나름대로 賈寶玉의 자기실현 과정을 읽어내고자 한다.

II. 페르조나⁷⁾와 자아⁸⁾

분석심리학에서 인간정신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의식의 중심에,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 자아 또는 '나'는 의식된 마음을 통솔하고 또한 무의식의 마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식의 특수한 콤플렉스⁹⁾이다. 그래서 자아 콤플렉스라고도 한다. 내가 아는

6) 이부영 《분석심리학》, 119쪽.

7)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자아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양식, 일종의 기능 콤플렉스를 용은 페르조나(Persona)라고 하였다. 그것은 사회집단이 개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갈 때 생긴다.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페르조나는 한 집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나누어 가지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집단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지폐에 비유된다. 이것들은 다른 집단에 가면 통용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는 거기서 쓰는 지폐나 화폐로 바꾸어야 한다.」(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2), 44쪽.

8)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용은 말한다. 자아 콤플렉스는 마치 자석과 같은 큰 매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세계에서 끌어당긴다. 그것은 또한 밖에서 오는 여러 인상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자아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바깥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살펴 이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하는 기능이다. 의식의 중심으로서 의식의 통제를 견고히 하는 것이 자아이지만 동시에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받아들여 이를 동화시키거나 그 뜻을 인식하는 것도 자아의 몫이다. 그만큼 자아는 자기실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32쪽.

9) 이부영 《분석심리학》: 「콤플렉스란 의식, 무의식 모두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특히 집단

모든 것,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 나의 생각, 지각, 느낌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의식, 또는 자아의식이라 한다. 의식의 내용은 모두 나와 연관되고 나는 나의 의식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며 무의식의 작용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도 한다.¹⁰⁾

《紅樓夢》¹¹⁾에 등장하는 인물은 4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賈寶玉이다. 그는 출신부터 신화적 색채가 짙다. 작가에 의하면 전설 속의 조물주 女媧가 돌을 깎아 하늘을 떠받치려고 돌을 만들었는데, 모두 36,501개의 돌을 사용하여 하늘을 떠받쳤다. 그 가운데 남은 하나의 돌 즉 青埂峰 아래에 버려져 있다가 스님과 도사를 우연히 만나 인간으로 환생하게 된다. 이 돌이 환생한 것이 바로 賈寶玉이라고 하였다. 女媧 神의 손길을 거쳤던 이 돌은 “通靈寶玉”으로써 인간 세상에 내려온 뒤 인간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는다. 돌은 19년을 살다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다시 청경봉 아래의 돌로 돌아온다.

이렇게 출신부터 신비로운 賈寶玉은 꿈도 역시 신비롭다. 《紅樓夢》제5회에서 寶玉은 榮國府의 賈母, 邢夫人, 王夫人을 따라 寧國府로 꽃구경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寶玉은 피곤하여 秦可卿의 방에서 낮잠을 자게 되고, 꿈속에서 寶玉은 秦氏에게 이끌려 “太虛幻境”에 들어간다. “太虛幻境”에서의 꿈 이야기는 제5회 한 회 전반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는데 “金陵十二釵冊子(正冊, 副冊, 又副冊)”와 “紅樓夢十二支曲”을 통한 寶玉과 黛玉의 애정 비극과 열두 주인공 여인들의 비극적 운명 그리고 寶玉의 “意淫”에 대한 警幻仙姑의 해석 및 寶玉과 秦可卿의 운우지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스토리에 대한 암시와 전개를 위한 설정이라면, 뒷부분은 寶玉의 잠재된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²⁾

賈寶玉의 자아는 소설 전체에 잘 나타나 있다. 성장기의 내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 賈寶玉은 예민하고 감상적이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적 무의식을 이루는 ‘콤플렉스’를 像, 또는 원초적 또는 근원적 유형, 줄인 말로 原型이라고 한다.」, 60쪽.

10) 이부영 《그림자》(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9), 35쪽.

11) 曹雪芹 著, 施詒 校註 《紅樓夢》(臺北, 黎明文化事業有限公司, 中華民國七十三年十一月初版)

12) 허근배·이난영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중국문학연구》 제42집, 한국중문학회, 2011), 6-7쪽.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인 이상의 실현보다 내적인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겪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그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性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과거를 통한 立身揚名의 추구하고 같은 당시 사회에서 바람직한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가치에 대한 회의 등이 그것이다. 賈寶玉은 사회적 가치와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¹³⁾

‘나(자아)는 한편으로는 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 내면 세계와 관계를 갖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사회’라든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를 갖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각종 對社會的 적응태도라든가 역할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집단이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약속 그 밖의 여러 행동 양식을 용은 ‘페르조나(Persona, 面)’¹⁴⁾라 불렀다. 이것은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인 만큼 그 개체의 외적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페르조나는 위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충실하려는 책임감 있는 심리 기제로 해석되어야 한다.¹⁶⁾

《紅樓夢》에서 賈府는 황제의 은총을 받아 호의호식하는 집안으로서 세습적인 작위를 가지고 있고 집안의 가훈이 엄격하다. 어려서부터 사서오경을 읽고 科擧에 급제하여 가족의 명예를 빛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의 관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된 寶玉에게 있어서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이 아닐 수 없었다.¹⁷⁾

13)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국문초록(V).

14) 이부영 《분석심리학》: 「페르조나는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다. 그것을 흔히 개성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즉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아는 차츰 자신도 모르게 집단정신에 동화되어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개성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없애야 할 것이라기보다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페르조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페르조나’와의 맹목적인 동일시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역할, 의무, 도덕규범, 예의범절, 이러한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맹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81-85쪽 정리.

15) 이부영 《분석심리학》, 59쪽.

16) Wallace B. Clift, 이기춘·김성민 역 《용의 심리학과 기독교》(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1), 36쪽.

또한 《紅樓夢》의 작가 曹雪芹은 외면적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한 개인의 '내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소설에서 주인공 賈寶玉이 대략 스무 살 되던 해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점은 그의 성장기인 10대에 맞추어져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방황은 일차적으로는 주인공 자신의 문제이지만,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¹⁸⁾ 작가 曹雪芹은 외면적 사회를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내면세계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간의 불일치와 분열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유형화된 전형적인 인물에서처럼 예측 가능한 일정한 방향으로 주인공이 행동하고 사고하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는 賈寶玉의 자아의식¹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賈寶玉의 자아의식은 소설의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다. 소설에서 설명하는 賈寶玉의 모습과 賈寶玉이 말하는 '나의 자아가 어떤지를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가지고 알아보자. 《紅樓夢》중 賈寶玉은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가진 인물형상이다. 작가는 제3회에서 〈西江月〉이란 시를 이용하여 賈寶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까닭 없이 근심 걱정 찾아다니니,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미친 듯이.
생김새 꼴 하나는 번듯하지만, 뱃속엔 원래부터 잡초 덩어리.
세상만사 살아갈 줄 전혀 모르고, 둔하고 어리석어 공부 싫어하였네.
언행은 괴벽하고 성질은 고약하니, 세상사람 비난에 상관인들 하리오!²⁰⁾

17) 허근배·이난영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 6-7쪽.

18)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163쪽.

19) 이부영 《분석심리학》: 「자아가 없으면 인간정신의 성숙도 불가능하고 융의 개성화도 불가능하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려면 자아와 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신분열증에 서처럼 자아가 분열되면 모든 가치감각이 사라지고 능동적인 재생을 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무의식은 자아의 무의식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반응하게 된다. 자아가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화하고자 할수록 무의식은 그의 창조적인 암시를 더욱 활발히 내보내게 된다.」, 65쪽.

20) 《紅樓夢》第3回: 「無故尋愁覓恨, 有時似傻如狂。縱然生得好皮囊, 腹內原來草莽。潦倒不通庶務, 愚頑怕讀文章。行爲偏僻性乖張, 那管世人誹謗?」, 31쪽.

부귀 속에 본업을 지키지 못하고, 빈궁하니 처량함을 견디지 못하네.
 황금 세월 허송함이 가련하구나, 나라에도 가문에도 소용없는 일.
 천하에 무능하기가 세상 첫째고, 고금에 불초함은 짝이 없어라.
 부잣집 귀족 자제 내 말 들으소. 행여나 이런 아이 닳지를 마소!²¹⁾

여기에서 ‘傻’와 ‘狂’(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미친 듯이)과 같은 賈寶玉의 복잡한 성격은 《紅樓夢》 속의 많은 인물들 마음속에 중요한 인상을 심어준다. 또한 주인공 賈寶玉의 내면적 자아는 독특하게도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분산되어 서로 다르게 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賈寶玉과 甄寶玉, 林黛玉과 薛寶釵, 襲人和 晴雯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紅樓夢》에서 賈寶玉은 작가의 투영이며 甄寶玉은 賈寶玉의 내면에 자라잡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작가는 賈寶玉과 甄寶玉의 다른듯하면서 같은, 들이면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인물 설정을 하였는데(제56회, 제114회, 제115회), 소설에서 甄寶玉은 賈寶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甄寶玉과 賈寶玉이라는 이름의 설정은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眞寶玉’과 ‘假寶玉’을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인격체의 그림자를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설정으로 볼 수 있다.²²⁾ 이러한 설정은 薛寶釵와 林黛玉의 이름 가운데 ‘寶’자와 ‘玉’자가 합해지면 ‘寶玉’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薛寶釵와 林黛玉도 賈寶玉의 ‘또 다른 자아’이면서 페르조나라고 할 수 있다. 페르조나는 타인의 인상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상이며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는 역할적, 기능적 자신의 상이다.²³⁾ 賈寶玉의 여성적인 성향 또한 이름의 작명과도 관련이 있다.

賈寶玉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제56회에서 꿈에서 깨어나 ‘거울 속의 그림자’인 ‘또 다른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

21) 《紅樓夢》第3回: 「富貴不知樂業, 貧窮難耐淒涼。可憐辜負好韶光, 於國於家無望。天下無能第一, 古今不肖無雙。奇言紈袴與膏粱, 莫效此兒形狀!」, 31쪽.

22)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165쪽 정리.

23) Wallace B. Clift, 이기춘·김성민 역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36쪽.

면서이다. 甄寶玉과 賈寶玉은 드디어 제115회에서 직접 대면하게 된다. 외양적으로 두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만큼 똑같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²⁴⁾ 그렇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서로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Ⅲ. 甄寶玉의 그림자 투영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의식의 내용이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심리적 내용들이다. 그림자란 개인적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 자아 콤플렉스인 무의식의 여러 가지 열등한 성격경향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자는 전체정신, 전체 무의식의 일부를 차지한다.²⁵⁾ 그것은 나,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다시 말해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 측면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되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아의식이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

융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그림자 투사로 인해 생긴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될 때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나와 같은 性의 대상에 투사되며 거기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²⁶⁾

전체로서의 인간의 정신은 의식의 對者인 그림자, 즉 무의식을 필요로 한다. 심리학적 의미의 ‘그림자 없는 사람’은 사실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으로부터 분열된 사람,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실체가 없는 사람이다.²⁷⁾ 즉, 그림자는 표현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²⁸⁾ 賈寶玉의 경우에도 미분화된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다. 일반적으로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으로 자기실현을 시작한

24)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166쪽.

25) 이부영 《그림자》, 52쪽.

26) 이부영 《그림자》, 41쪽.

27) 이부영 《그림자》, 69쪽.

28) 이부영 《그림자》, 170쪽.

다. 또 다른 賈寶玉이라 할 수 있는 甄寶玉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의 전통적 유가사상인 “仁義”와 “孝” 문화의 지배를 받아왔던 당시 사회에서 寶玉에게 “殺父”의 정서까지는 있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억압을 주는 상대였다. 《紅樓夢》 제5회에 나오는 警幻仙姑와의 대화에서 보면, 賈寶玉은 “글 읽기를 싫어해서 부모님의 꾸중을 듣는 것”이 싫고, “孔孟之道”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글 읽기를 싫어한다고 꾸중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孔孟之道”를 강요하는 사람 역시 아버지이다. 이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꿈속에서 자기와 꼭 닮았다고 하는 甄寶玉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賈寶玉은 “대감님께서 도련님을 부르십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들짝 놀란다.”²⁹⁾ 아버지 賈政은 때때로 寶玉을 불러 과거 공부를 점검하고, 힘없이 손님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얼굴에 온통 사욕과 근심뿐이라고 꾸중하기도 한다.³⁰⁾ 그 손님 역시 賈寶玉이 거부하고 반항하는 공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보면 賈寶玉의 반발심은 극도에 달했을 것이다.³¹⁾

甄寶玉이 선택한 길은 유가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가 되는 것이었다. 甄寶玉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유가적인 가치와 규범을 자기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賈寶玉은 甄寶玉을 “늑봉이나 탐내는 무리”로 치부하며 더 이상 세상과의 타협을 포기한 채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甄寶玉을 만난 이후 賈寶玉의 내면의 갈등은 훨씬 구체화되고 표면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³²⁾

寶玉의 의식 속에 비춰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仕途”에 서있는 남성들의 가식과 위선, 그의 주위에 있는 賈璉, 賈瑞 등과 같은 음란하고 방탕한 남성들의 자태가 더해졌다. 그래서 남자는 혼탁하고 여자는 맑고 그윽하며 여자는 존중하지만 남자는 억압하는 생각 즉, “여자는 물로 된 몸이요. 남자는 흙으로 된 몸이어서 여자

29) 《紅樓夢》第56回: 「只見人來說: 「老爺叫寶玉」。嚇得二人皆慌了。」, 603쪽.

30) 《紅樓夢》第33回: 「全無一點慷慨揮灑的談吐, 仍是委委瑣瑣的, 我看你臉上一團私慾愁悶氣色!」, 342쪽.

31) 허근배·이난영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트적 접근>, 14쪽.

32)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167쪽.

결에 가면 마음이 상쾌하지만 남자는 얼굴만 봐도 역겨움이 난다.”³³⁾는 관념 세계를 만들어냈다.

賈寶玉의 여성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癡情”³⁴⁾은 그야말로 “男尊女卑”의 도덕 표준에는 반사회적이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는 물로 된 몸이다.”라는 것은 그의 자연적인 인성관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은 가장 자연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은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므로 여자의 마음 또한 맑고 깨끗한 물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오염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자연을 더 선호하며 전혀 구속 받지 않는 자유자재의 기질이 담겨져 있다. 때문에 여자한테서는 인간성에 대한 것이 더 쉽게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는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벼슬길을 추구하므로 이는 비자연적인 것이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賈寶玉은 ‘自然人’에 대한 추구로 인해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억압하게 되면 그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동은 그에게 “孔孟之道”를 권고하고 벼슬을 바라는 薛寶釵나 史湘雲에 대한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자신에게 벼슬길로 가기를 바라는 史湘雲을 보고 寶玉은 “아가씨! 미안하지만 다른 자매들 방으로 가 주세요. 아가씨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데 앉아 계시면 몸이 더러워져 되겠어요?”³⁵⁾라고 말한다. 반면에 賈寶玉의 “女兒”에 대한 존중, 동정, 다정다감함은 상대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귀족 아가씨든 비천한 몸종이든 모든 “女兒”에 대한 것

33) 《紅樓夢》第2回: 「女兒是水做的骨肉, 男子是泥做的骨肉: 我見了女兒便清爽, 見了男子便覺濁臭逼人!」, 17쪽.

34) 최병규 <<紅樓夢> 속의 “情”과 “淫”>: 「요컨대 “치정”이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정이 지극하여 비록 세속의 예법이나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고 바보스러우며 미친듯하지만 사실 그 내면의 세계는 그 영혼의 순수함과 진실함, 그리고 선량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있는 인간미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그것은 공리성을 떠나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생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치정”의 세계야말로 <홍루몽>에서 역설하는 정의 한 중요한 함의인 것이다.」(《中國語文論譯叢刊》第15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137쪽.

35) 《紅樓夢》第32回: 「姑娘請別的屋裏坐坐罷. 我這裏仔細腌臢了你這樣知經濟的人!」, 336쪽.

이다. 그것은 결코 “淫”이 아닌 “남녀 간의 관계를 한 차원 승화시켜주는 격조 높고 고귀한 것”³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賈寶玉의 甄寶玉에 대한 거부반응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데서 생긴 방어기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자신을 변화시켜 그 실패를 잊는다거나, 자신의 고통스런 상황을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賈寶玉의 자아는 그림자와 대면하여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한다. 그림자란 일차적으로 개인적 무의식에 억압된, 앞으로 의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열등한 인격의 한 측면이다. 賈寶玉이 甄寶玉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보다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림자는 자아의 바로 밑바닥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심리적 경향 또는 내용이므로 그 특징은 상당히 자아의식의 특징과 닮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슷하면서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열등한 경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림자의 투사는 곧잘 자아와 비슷한 대상에 향하는 것이 보통이다.³⁷⁾ 襲人이 薛寶釵의 그림자이고 晴雯·五兒는 林黛玉의 그림자이며, 薛寶釵와 林黛玉은 賈寶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림자의 인식 또는 의식화는 남성의 여성성인 아니마(Anima) 또는 여성의 남성성인 아니무스(Animus)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보통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어둠으로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등기능은 우월 기능의 그림자라고 할 만한 것이다.³⁸⁾

IV. 이중적 아니마-林黛玉과 薛寶釵

《紅樓夢》 중의 薛寶釵와 林黛玉이 각기 ‘금옥의 좋은 인연(金玉良緣)’과 ‘목석의 옛 맹세(木石前盟)’를 대표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36) 최병규 <중국문인들의 전통적 “愛紅”심리를 통해서 본 《紅樓夢》 賈寶玉의 심리세계> (《中語中文學》 第37輯,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277쪽.

37) 이부영 《분석심리학》, 73쪽 정리.

38) 이부영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53-54쪽.

林黛玉과 薛寶釵는 《紅樓夢》에서 항상 서로 함께 거론되고 두 사람은 동시에 출현한다. 그리하여 薛寶釵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林黛玉를 언급하고 林黛玉를 언급할 때도 반드시 薛寶釵를 언급하였다.³⁹⁾ 이 둘은 十二釵判詞에서도 다음과 같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베를 멈춰 격려한 부덕이 안타깝다, 버들 숨 노래 부른 재주가 가련하다.
옥 허리띠 숲 속에 걸려있고, 금비녀는 눈 속에 묻혀버렸네.⁴⁰⁾

아니마가 의식되어 분화되지 못할 경우, 그것들은 부분 인격이기 때문에 열등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하여 양자는 인간의 인격에 열등한 남성으로 나타나 사람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되지 않아 외계에 투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아니마상을 자신의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관심을 계속 밖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인격의 성숙은 자신의 의식에 부족한 것을 자기의 안에서 찾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정화시키는 데 있다. 페르조나가 자아와 외계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어듯이 아니마는 자아와 내면세계를 중재해 주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이성적인 실체인 아니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전일성을 향한 인간의 역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폰 프란츠는 보편적인 중국의 아니마 이미지는 “달의 여인”이며 마리아상에 비길 수 있는 동양의 예는 “관음보살”⁴¹⁾이라 했다. 소설에서 賈寶玉의 할머니이며 賈氏 집안(榮國府와 寧國府)의 절대권자인 史太君은 太母原型으로 관음보살과 유사한 관대함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가족이라는 賈寶玉의 독특한 성장 환경은 남성으로 태어난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여성에 대한 동경심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

39) 최용철·고민희·김지선 지음 《붉은 누각의 꿈-홍루몽 바로 읽기》: 「사실 보차와 대옥이라는 이름은 보옥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떼어내어 만들어진 것으로 두 여인은 두 사람이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보옥의 내면에 숨어있는 두 가지 모습이다. 즉, 보옥의 내면에는 입대옥으로 대변되는 절대 순수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설보차로 대변되는 현실지향적 성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이 없으면 보옥의 존재도 없는 것이고, 보옥에게 두 사람은 어느 편으로도 기울기가 어려운 이상형의 양면이라고 해야 옳았다.」(서울: 나남, 2009), 124쪽.

40) 《紅樓夢》第5回: 「可歎停機德, 堪憐詠絮才。玉帶林中掛, 金釵雪裏埋。」, 49쪽.

41) 칼 구스타브 융 엮음,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194쪽.

자 자매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무의식중에 그녀들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감이 싹트게 되었고, 그 열등감은 그녀들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賈寶玉은 끊임없이 여성과의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남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인하려 한다.

소설에서 林黛玉와 薛寶釵는 주인공 賈寶玉의 아니마라고 할 수 있다. 林黛玉가 賈寶玉의 생각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내면적 목소리인 긍정적 아니마라면, 薛寶釵는 賈寶玉에게 계속해서 충고하며 그의 길을 돌이킬 것을 강요하는 부정적 아니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黛玉는 寶玉의 유일한 ‘紅顏知己’이다. 寶玉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성들이 싸돌고 있다. 그도 그녀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보였고 우정을 나누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오해와 무관심뿐이었고 그것이 寶玉의 마음을 아프고 외롭게 했다. 黛玉도 예민한 성격과 예리한 말투로 못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寶玉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의 정신세계를 공감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寶玉에게 “仕途經濟”와 “孔孟之道”를 권하지만 林黛玉는 賈寶玉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의 인생관에 동조한다.⁴²⁾

賈寶玉이 林黛玉를知己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그에게 어떤 길을 가도록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林黛玉는 소설에서 그 누구보다도 賈寶玉의 독특한 기질과 성향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賈寶玉을 언제나 인정하고 긍정해 주는 여자였다. 그녀는 賈寶玉의 생각과 가치,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지하고 옹호해 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⁴³⁾

첫 만남이지만 “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웬일일까? 어찌면 이렇게도 눈에 익담?”⁴⁴⁾ 이 말은 寶玉이 黛玉를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이다. 이는 賈母의 말처럼 “허튼 소리”가 아니라 寶玉의 무의식 속에서 그려왔던 이상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寶玉의 黛玉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원초적 애욕이 아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비인간적이고 봉건예교적인 전통에 대한 반항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남녀평

42) 허근배·이난영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 12-13쪽.

43)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169쪽.

44) 《紅樓夢》第3回: 「好生奇怪, …… 倒像在那裏見過的? …… 何等眼熟!」, 31쪽.

등 의식과 개성에 대한 추구하고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발로라고 할 수 있다.⁴⁵⁾

한편 薛寶釵는 온유하고 후덕한 인품에 집안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지닌 현명한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 薛寶釵는 언제나 賈寶玉에게 충고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薛寶釵는 賈寶玉에게 반복해서 기대와 충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문의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녀는 유가적 가치와 규범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 체화시킨 인물을 대표한다.⁴⁶⁾

열정적인 형태의 아니마의 投射는 한 남자를 망칠 수도 있고, 그에 수반되는 난처한 일로 발전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마가 內的인 힘으로서 인식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극적 사건의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다.⁴⁷⁾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문화권의 남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남성이 아니다. 무의식적인 모성성과의 유대, 모성에 대한 무한한 의존심을 은폐하려는 반작용으로 남성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아니마는 아직 모성성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⁴⁸⁾ 그런 의미에서 중국 남성의 보편적 특성이 그렇듯이 賈寶玉은 모성 콤플렉스⁴⁹⁾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융에 의하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류가 조상 대대로 이성에 관하여 경험한 모든 것의 침전물”⁵⁰⁾이라고 했다. 이 이미지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연인에게 투사되어 정열적인 매력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賈寶玉의 미분화된 아니마는 출가의 길로 인도한다. 불교에 귀의했다는 것은 몸을 감싸고 있는 “가식과 허영을 벗어 던진다”⁵¹⁾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賈寶玉이 바라던 삶, 즉 그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賈寶玉으로 돌아가라는 충고이다. 시간은 파괴의 힘이며 동시에 진실을 보여준다. 시간의 정적은 “깨달음의 세계로 빠져나감”⁵²⁾, 영원을 의미

45) 허근배·이난영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 13쪽.

46)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170쪽.

47) 칼 구스타브 융 엮음,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186쪽.

48)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203쪽.

49) 이부영 <JUNG의 모성상과 모성콤플렉스론>: 「넓은 의미의 모성성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 《심성연구》 2(2), 73-88쪽.

50) 이부영 《분석심리학》, 92쪽.

51) 키류 미사오, 이정환 역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II)(서울문화사, 1999), 280-281쪽.

52) 진쿠퍼,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363쪽.

한다. 賈寶玉은 부정적 아니마인 薛寶釵와의 결혼, 긍정적 아니마인 林黛玉의 죽음을 통하여 개인적 무의식으로 남아 망각되었던 그림자를 의식하게 된다.

V. 出家를 통한 자기실현⁵³⁾

용의 자기실현이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실현의 기회는 결혼생활의 파탄, 절망과 병고뿐 아니라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정신적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온다.⁵⁴⁾ 여기에서 賈寶玉의 자기실현 과정을 살펴보자.

제66회와 제67회에서 사랑을 거부당한 尤三姐는 柳湘連의 칼로 자결을 하고, 尤三姐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한 柳湘連은 절름발이 도사를 따라 출가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林黛玉과 賈寶玉의 미래를 예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寧國府 賈敬 대감의 참선을 통한 수련과정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연단을 გადა 복용하여 죽음으로 끝나지만, 내면적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일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상징을 통하여 무의식의 심층에 이르고 자아의 근원적인 본성을 이해하고 체험한다. 의식이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 때 "인간정신의 전체적 실현과 그 성숙은 가능"⁵⁵⁾해진다.

여기에서 賈寶玉의 과거시험 응시 후 출가는 그림자와 아니마를 인식했기 때문

53)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왜 자기실현인가? 이 물음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왜 '자아' 실현이 아니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가. 자아와 자기는 같은 것인가. 왜 자기실현을 해야 하는가.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없다. 실현하는 것은 자아(나)가 아니고 자기이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를 구분한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전체정신의 중심이다. 전체정신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은 발달, 분화, 강화될지언정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실현이란 아직 모르고 있는 전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아는 알고 있는 정신세계, 즉 의식계의 주인이므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자기실현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그것이 인간의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자기실현은 엄숙한 것도 심각한 것도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삶을 가능한 많이 실현하는 것이다.」, 29쪽.

54)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93-103쪽 참조.

55) 이부영 《분석심리학》, 61쪽.

이다. 賈寶玉은 현실의 자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아에서 자기, 즉 자신의 길을 찾아 외롭지 않고 풍족한 자기가 되려 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賈寶玉이 어떻게 자기실현을 하는가?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아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를 의식화하여 출가하는 것이 賈寶玉의 자기실현이다. 그리고 소설은 이 장면에서 끝을 맺는다. 賈寶玉은 속세에서 자기실현을 출가로 마무리 한다. 이니시에이션(Initiation, 入門)에서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 부활, 재통합에 앞서 죽음의 암흑을 경험하게 된다. 죽음은 한 존재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의 변화이며 육체와 땅, 혼과 영의 재결합이다.⁵⁶⁾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하던 가운데, 賈寶玉은 甄寶玉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계기를 얻는다. 제116회에서 賈寶玉은 정신을 잃고 꿈속에서 다시 태허환경으로 들어가 ‘眞如福地’를 방문하는 영적 체험을 하고 깨어난다. 그곳의 대련에는 “가짜가 가고 진짜가 오니 진짜가 가짜를 이기고, 없음은 본시 있음이요 있음은 없음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를, 지혜와 현명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원인과 결과는, 친한 이도 만날 수 없게 하느니라.”, “기쁨과 슬픔은 모두 허망한 것이요, 욕심과 사랑은 언제나 어리석은 것.”⁵⁷⁾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무의식의 세계를 쉽게 이해하려면 자신의 꿈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두 개의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미래의 노인이 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성격의 꿈들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한 형상들을 꿈속에서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희망의 상징들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한다. 꿈은 무의식세계의 산물로서 무의식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인 것이다. 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꿈의 한 등장인물로 출현하면서, 동시에 전체적 장면을 다 조망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자아 밖의 정신이 전체 극의 연출자이자 극의 제작자로 드러나

56) 진 쿠퍼,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100쪽.

57) 《紅樓夢》第116回: 「假去眞來眞勝假, 無原有是有非無。…… 過去未來, 莫謂智賢能打破; 前因後果, 須知親近不相逢。…… 喜笑悲哀都是假, 貪求思慕總因痴。」 1228-1229쪽.

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와 흐름은 주인공인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인공인 자아는 자신이 처한 원형적 상황에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로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해결방식을 구축하려는 과정으로 끝어간다.⁵⁸⁾ 이 체험을 통해 가문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채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출가의 길을 갈 것인지 기존 유가의 가치와 이상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문제 앞에서 賈寶玉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소설에서 출가는 賈寶玉이 더 차원이 높은 정신세계로 들어갔다는 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은 《紅樓夢》을 분석심리학으로 분석하여 이것의 심층 의미를 찾아보는데 있다.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융은 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려는 자기완성, 즉 자기실현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다. 본 작품은 주인공 賈寶玉이 어떻게 자기실현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賈寶玉은 여성성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며 남성성을 거부한다. 이것은 賈寶玉이 여성을 상징하는 ‘寶玉’을 물고 태어났기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양성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賈寶玉에게 여성의 결혼은 순수성의 상실, 곧 타락을 의미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賈寶玉은 金陵十二釵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불행한 말로와 입에 물고 태어난 玉의 분실, 자신이 사랑한 林黛玉의 죽음, 원치 않던 薛寶釵와의 혼인 등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혼돈을 경험한다. 어느 날 잃어버렸던 玉을 되찾은 賈寶玉은 무의식을 깨닫고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賈寶玉은 賈氏 집안의 몰락과 사랑했던 사람들의 참담한 죽음 앞에 선 순간, 자신에게 던져졌던 원형상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그래서 깨달음과 자유를 얻고 출가하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도피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출가는 본성으로의 회귀 즉 환원을 의미한다.

결국 賈寶玉의 자기실현은 출가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賈寶玉은 賈氏 집안

58) C.G.융,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 2) (서울: 솔출판사, 2002), 112-125쪽 참조.

의 몰락을 보면서 현세가 거짓된 삶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삶을 찾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물질적, 현세적, 유가적 삶을 버리고 정신적, 피안적, 불교적 수양의 진정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다.

【參考文獻】

- 曹雪芹 著·施詒 校註《紅樓夢》臺北，黎明文化事業有限公司，中華民國七十三年十一月初版。
- 조설근·고악 지음, 최용철·고민희 옮김 《紅樓夢》 서울, 나남, 2010.
- 데이비드 폰태너 지음, 최승자 옮김 《상징의 비밀》 서울, 문학동네, 1998.
- 에마 용, 박해순 역 《아니무스와 아니마》 서울, 동문선, 1995.
-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1998.
- 이부영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9.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2001.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2002.
- 진쿠퍼,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2003.
- 최용철·고민희·김지선 지음 《붉은 누각의 꿈-홍루몽 바로 읽기》 서울, (주)나남, 2009.
- 칼 구스타브 융 엮음,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1993.
- 칼 구스타프 융,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출판사, 200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6.
- Wallace B. Clift, 이기춘·김성민 역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1.
- 유정희 〈Jung 학파에서 보는 여성심리〉; 《神經精神醫學》第31卷 第1號,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2.
- 이영화 〈《紅樓夢》賈寶玉 形象의 含意 研究〉 고려대석사학위논문, 2011.
- 정진희 〈이현주 동화 『바보온달』의 자기실현 인식양상 연구〉; 《돈암어문학》통권 제22호, 돈암어문학회, 2009.
- 최병규 〈중국문인들의 전통적 “愛紅” 심리를 통해서 본 《紅樓夢》賈寶玉의 심리세계〉; 《中語中文學》第37輯,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 최병규 <《紅樓夢》속의 “情”과 “淫”>: 《中國語文論譯叢刊》第15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 최병규 <情欲合一과 『紅樓夢』 賈寶玉의 “意淫”>: 《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2.
- 허근배, 이난영 <賈寶玉의 “性夢”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 《중국문학연구》 제42집, 한국중문학회, 2011.

【英文提要】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its deep meaning by analyzing <The Dreams of Red Mansions(紅樓夢)> through Analytical Psychology. The founder of Analytical Psychology, C.G.Jung believed that Self-actualization, effort integrating one's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s the final goal of human life. This study showed the process of accomplishment of Self-actualization of the main character, Jia Baoyu(賈寶玉).

Jia Baoyu was abnormally obsessed with the femininity and refused firmly the masculinity. It was because he was born with jade in his mouth. Jades representing the femininity deprived him of the masculinity and made him androgynous. The marriage of woman, in his aspect, was a depravity, the loss of purity. He experienced a confusion between being or not being in going through the incidents such as the last unhappy days of the Jinling's twelve beauties(金陵十二釵), the loss of the jade in his mouth by birth, the death of Lin Daiyu(林黛玉) he loved so much and the loveless marriage with Xue Baochai(薛寶釵). He got the jade back and realized his unconsciousness and had the desire of

self-actualization. He became clearly conscious of his unconsciousness through the prototype given to him in the moment of being confronted by his family's ruin and by the death of the people he loved. As a result of finding this spiritual enlightenment, he became a bonze, that signifies the eternal reversion to his nature.

The self-actualization of Jia Baoyu(賈寶玉) was completed in form of becoming a Buddhist monk. His family's declining fortune opened his eyes to seeking a true life instead of living a false life in this world. He got on his own way to finding himself. The self-actualization is to realize that the present oneself is just "special person" and to cultivate constantly one's mind.

【主題語】

페르조나, 자아, 그림자, 아니마, 자기실현, 紅樓夢, 賈寶玉

투고일: 2013. 4. 15 / 심사일: 2013. 4. 20~5. 5 / 게재확정일: 2013. 5. 10